

10대 경제강성, 중국 GDP 기여도 60% 이상



하남성 랑양시 여양현 선전제조업개발구 흥로강구 여양기지 로봇용접 작업장 / 신화넷

광둥, 강소, 산둥, 절강, 사천, 하남, 호북, 복건, 상해, 호남 등 10개 성급 지역은 우리 나라에서 차지하는 면적이 약 20%에 불과하지만 국내총생산(GDP) 대비 기여도는 60%를 웃돈다. 경제대성인 이 지역들은 얼마나 빠르게 성장하고 있으며 어떻게 우리 나라 경제를 이끌고 있는 걸까?

◇ 우리 나라 경제·사회 발전의 든든한 버팀목

경제총량으로 볼 때 2024년에 10대 경제강성의 GDP는 모두 5조원을 초과, 루계로 82조원을 넘어 전국 경제총량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61%로 상승하였다. 그중 광둥의 GDP는 36년 연속 1위를 유지, 올해에는 14조원의 새로운 단계에 올라섰다. 경제 증속으로 볼 때 10대 경제강성중 7개가 전국 5%의 증속을 넘어

섰는데 그중 강소, 호북의 경제성장이 5.8%로 공동 1위를 차지했다. 이러한 성과를 달성할 수 있었던 원동력은 무엇일까? 우선 생산 측면에서 10대 경제강성은 대부분 1차, 2차, 3차 산업이 동시에 성장할뿐더러 각 분야에서 고르게 발전하고 있다. 1차 산업의 부가가치는 전국의 49.4%를 차지하고 2차, 3차 산업은 각각 63.5%, 60.5%를 점했다. 제조업은 경제 발전의 초석으로 꼽힌다. 지난해 10대 경제강성중 8곳의 규모 이상 공업 부가가치 증가율이 전국 평균인 5.8%보다 높았다. 그중 산둥성은 8.3%로 가장 높은 증가율을 기록했다. 수요 측면에서 10대 경제강성의 사회소비재 소매판매총액은 전국의 63% 이상을 차지했으며 8곳의 증가율은 전국 평균을 웃돌아 소비로 인한 견인 효과가 뚜렷했다. 또한 외부의

불확실성이 증가하는 상황에서도 수출입총액은 32조 7,000억원을 넘어서며 전국에서 74.7%를 점했다. 특히 부동산 개발 투자 감소 등의 영향에도 불구하고 경제대성의 고정자산 투자는 전반적으로 꾸준한 성장세를 보였고 투자 구조 또한 지속적으로 최적화되고 있다는 점이 눈에 띈다. 실제로 하남성의 공업 투자는 전년 대비 21.6% 증가했고 산둥성의 제조업 투자는 15.1%, 호북성의 하이테크산업 투자는 16.7% 확대됐다.

◇ 과학기술혁신 역량으로 산업 성장 견인

딥시크, 우수과학기술 등 인공지능(AI) 기업을 대표로 하는 항주 6소룡(六小龙)의 활약에 전세계의 이목이 쏠린 가운데 절강성 등 경제대성의 고 품질 발전이 '중추적 역할'을 하고 있다는 평가다.

지난해 상해의 집적회로(IC), 생물 의약, AI 등 3대 선도산업의 규모는 1조 8,000억원에 달했다. 사천성에서는 AI, 생물기술, 드론 등 신중공업의 부가가치가 20% 이상 증가했다. 절강성의 경우 디지털경제 핵심산업 부가가치가 8% 가량 늘었다.

경제대성은 과학기술혁신 역량 제고에도 힘을 쏟고 있다. 2024년 상해, 절강성의 연구개발 집약도는 각각 약 4.4%, 3.2%로 전국 평균인 2.68%를 상회했다. 광둥성은 지역 혁신 역량 평가에서 8년 연속 전국 1위를 차지했다.

또한 녹색, 저탄소 전환을 위한 노력도 이어지고 있다.

지난해 산둥성의 신에너지 및 재생 에너지 발전설비용량은 1억 1,500만 키로와트에 달해 사상 처음으로 석탄 발전설비 비중을 넘어섰다. 복건성의 삼림 피복률은 46년 연속 전국 1위를 차지하고 있다.

◇ 경제성장 목표 5% 이상, 국가 경제 이끈다

지난해말에 열린 중앙경제사업회의는 "경제대성이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맞춰 경제대성은 올해 경제성장 목표를 제시했다.

각지의 정부사업보고를 살펴보면 광둥, 상해는 약 5%, 강소, 산둥은 5% 이상, 복건은 5~5.5%, 절강, 하남, 호남은 약 5.5%, 사천은 5.5% 이상, 호북은 약 6%로 대부분의 경제대성이 올해 경제성장 목표를 5% 이상으로 설정했다.

국가발전개혁위원회 경제연구소 과령량 부소장은 "경제대성의 성장 목표가 중장기 계획과의 연계를 넘어서는 것"이라며 "이는 고품질 발전을 추진하고 '14차 5개년 계획'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필요성을 충분히 반영한 것"이라고 말했다.

/ 신화넷

심수

국내 최초 '드론 + 무인차' 스마트 물류센터 오픈



풍익보안저고도스마트물류운영센터의 승강구역에 대기중인 드론 / 신화넷

하늘길과 지상길이 결합된 '공중·지상 협동' 스마트 물류센터가 국내에서 최초로 문을 열었다.

14일, 광둥성 심수시 보안구 신안 가두에서 10 킬로그램의 택배를 실은 흰색 복합의 드론이 빠르게 하늘로 날아올라 북서쪽으로 향했다.

이날 풍익보안저고도스마트물류 운영센터가 정식 운영을 시작했다. 기존 택배 처리 능력과 저고도 물류 운송 능력이 결합된 해당 센터는 스마트 도시 운영에 종합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운영센터 건물은 총 2층으로 옥상엔 드론 승강장이, 2층엔 드론 지휘·대응센터 및 스마트도시서비스 센터가 있다. 1층은 택배 운송 스마트 네트워킹로 구분된다. 그 밖에 단지 안은 드론승강구역, 무인차량 연결구역, 차량연결정차구역 등 기능 구역으로 나누어져 있다.

운영센터에서는 근·중거리 범위의 서로 다른 배송 수요에 맞춰 다양한 항로와 적재량의 드론을 운영하고 있다. 그중 운영센터의 '브레인' 역할을 하는 드론 지휘·대응센터에서는 바로바로 비행 대수, 시간, 적

재량 등 데이터를 모니터링하고 승강 지점의 실시간 영상을 확인하며 드론의 비행 상태를 점검할 수 있다.

풍익드론 정무총감 진효휘는 해당 센터에는 여러가지 드론 연결 방법이 설정되어있으며 시스템이 주소지에 따라 계획을 세운다고 설명했다. 대부분의 택배는 드론배송센터를 거쳐 순풍익스프레스 네트워크를 통해 분류·처리후 배송된다. 일부 택배는 자동화된 '드론 + 무인차' 연결함을 통해 무인차량으로 배송망까지 전달되며 일부는 드론이 사용자가 직접 수령 가능한 보관함까지 배송한다.

진효휘는 "향후 드론 연결함이 증설되고 건물내 배송 로봇이 규모화 및 응용되면 전체 택배 배송 과정의 무인화가 가능해질 것"으로 내다봤다. 그는 운영 모델의 최적화와 기술 업그레이드가 진행되면 드론을 리용해 보안구의 택배를 주해, 중산, 동관 등 도시로 직접 배송하여 월항오대만구(粤港澳大湾区) 2시간 물류권을 구축할 수 있을 것이라고 부연했다.

/ 신화넷

승주

첫 민간투자 항공엔진시험장 건설

'스카이스티' 건설 박차

사천성 승주시는 제조, 테스트, 도시 항공 서비스 통합된 스카이스티(天空之城)를 2027년까지 건설할 계획이다.

우리 나라에서 최초 민간투자 건설되는 항공엔진시험장이 사천성 승주시에 착공했다.

중발천신(사천)항공엔진과학기술회사(이하 '중발천신')가 추진하는 해당 프로젝트는 그 규모가 총 22억 5,000만원에 달한다. 이곳에서 중소형 항공기 엔진의 고고도 테스트가 이뤄질 예정이다.

중발천신 류신 회장에 따르면 2027년에 완공 예정인 이곳은 경비행기 엔진 생산기지로 드론, 플라잉카, 저고도 교통수단 등 차세대 항공 연구개발을 뒷받침하는 한편 급성장중인 저고도 경제 발전에 힘을 보탬 것으로 보인다.

항공 엔진은 '항공기의 심장'이라 불리는 만큼 극한의 조건에서 엄격한 테스트를 진행해야 한다. 우리나라는 지난 10여년간 국산 엔진 개발을 위한 고고도 시뮬레이션 인프

라 건설에 대한 투자를 확대해왔다.

승주 경제개발구 구역협력부 리도 부장은 우리 나라는 항공 엔진을 위한 고성능 테스트 플랫폼이 지원이 아쉽다는 제한적이라면서 민간 시장에서 사용할 수 있는 플랫폼은 더욱 드물다고 지적했다.

그는 "대외에 개방된 항공 엔진 고성능 테스트 플랫폼이 승주의 저고도 항공 경제 발전을 크게 뒷받침함으로써 산업사슬의 상하류 집결을 이끌 것으로 기대된다."고 강조했다.

시설이 완공되면 항공 엔진 제조업체는 해외 기술에 의존하지 않고 엔진의 추진력, 내구성, 안정성을 테스트할 수 있게 된다는 설명이다.

한편 최근 홍원항공엔진산업단지 프로젝트도 승주에서 동시에 착공됐다. 승주시는 총투자금이 6억원에 달하는 해당 프로젝트를 통해 대형 터보팬엔진(涡轮发动机) 부품의 연구, 제조, 유지 관리를 위한 기반을 구축할 예정이다. 더불어 드론, 소형 항공 엔진, 탄소섬유 프리프레그(预浸料)를 비롯한 복합구조 부품도 생산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 신화넷



2020년 2월 25일, 사천성 승주시에 위치한 밭에 농약을 살포하는 드론. / 신화넷

북경, 해외 비즈니스 인사 위한 '특별비자' 발급

북경시는 외국인 비즈니스 인사의 왕래 편리성을 높이고 도시의 국제화 환경을 최적화하기 위한 조치를 내놓았다.

북경시정부 외사판공실은 최근 북경변경총검사소와 손잡고 특별비자와 통관 편의 연계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소개에 따르면 해당 서비스 대상에는 북경에 등록된, 조건에 부합되는 기업의 초청으로 자주 북경에 와 비즈니스 무역 활동을 하고 적극적인 역할을 하는 외국인 사업가와 그 배우자 및 자녀가 포함된다. 외사판공실 관계자는 앞으로 조

건에 맞는 외국인 비즈니스 인사에 게 180일간 체류할 수 있는 5년 복수 특별 초청장을 발급하겠다고 말했다. 신청자는 지문 채취를 면제받고 타인에게 비자 신청을 위탁할 수 있다.

북경변경총검사소는 북경 수도공항과 대흥공항으로 출입경하는 외국인 비즈니스 인사에게 통관 편의를 제공해 신속한 통관이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특별 초청장 신청부터 획득까지 '전 과정 온라인 처리'를 실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신화넷



1월 28일, 변방검사소 직원(오른쪽)이 북경 수도국제공항에서 외국인 관광객에게 '복(福)' 자가 적힌 종이를 건네고 있다. / 신화넷

서부지역 최대 고속철 중추-중경동역 선로 정밀조정 단계 진입



2월 18일, 중철 11국, 성도철도국 중경공무구간의 로동자들은 대기다듬이차, 레우다듬이차 등 대형 기계의 협조하여 중경동역 건설 시공현장에서 궤도 부설 완료후의 정밀조정 작업을 진행했다.

정밀조정 작업은 철도 로동자들이 선로에 대해 정밀 측정, 정밀 조정, 정밀 다짐 등 일련의 조정 작업을 전개하여 선로의 기하학적 형태, 궤도면 설계 표고 등 매개변수를 세밀히 조정하고 선로의 평탄도를 높이는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의 철도 정밀조정 기준은 궤간 오차가 '마이너스 0.3~0.1밀리미터 이내로 '밀리미터 수준'에 도달해야 한다.

중경동역은 우리 나라 서부지역에서 가장 큰 고속철도 중추역으로 되어 중경·성도 경제권 및 서부 루해 신통로 건설에 조력하게 된다.

사진은 중경동역 건설시공현장에서 레우연마차의 운행 상태를 살펴보고 있는 중철 11국 철도 로동자. / 신화넷